

## ‘대구형 5분 동네’ 밑그림 나왔다

범어·수성·대명·산격 4개 지구  
대규모 ‘슈퍼블록 단위’ 통개발  
홍 “공간혁신 모범사례로 추진”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약인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을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대구시는 미래번영과 시민행복을 위한 대구형 미래지향적 주택지 조성 방안인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18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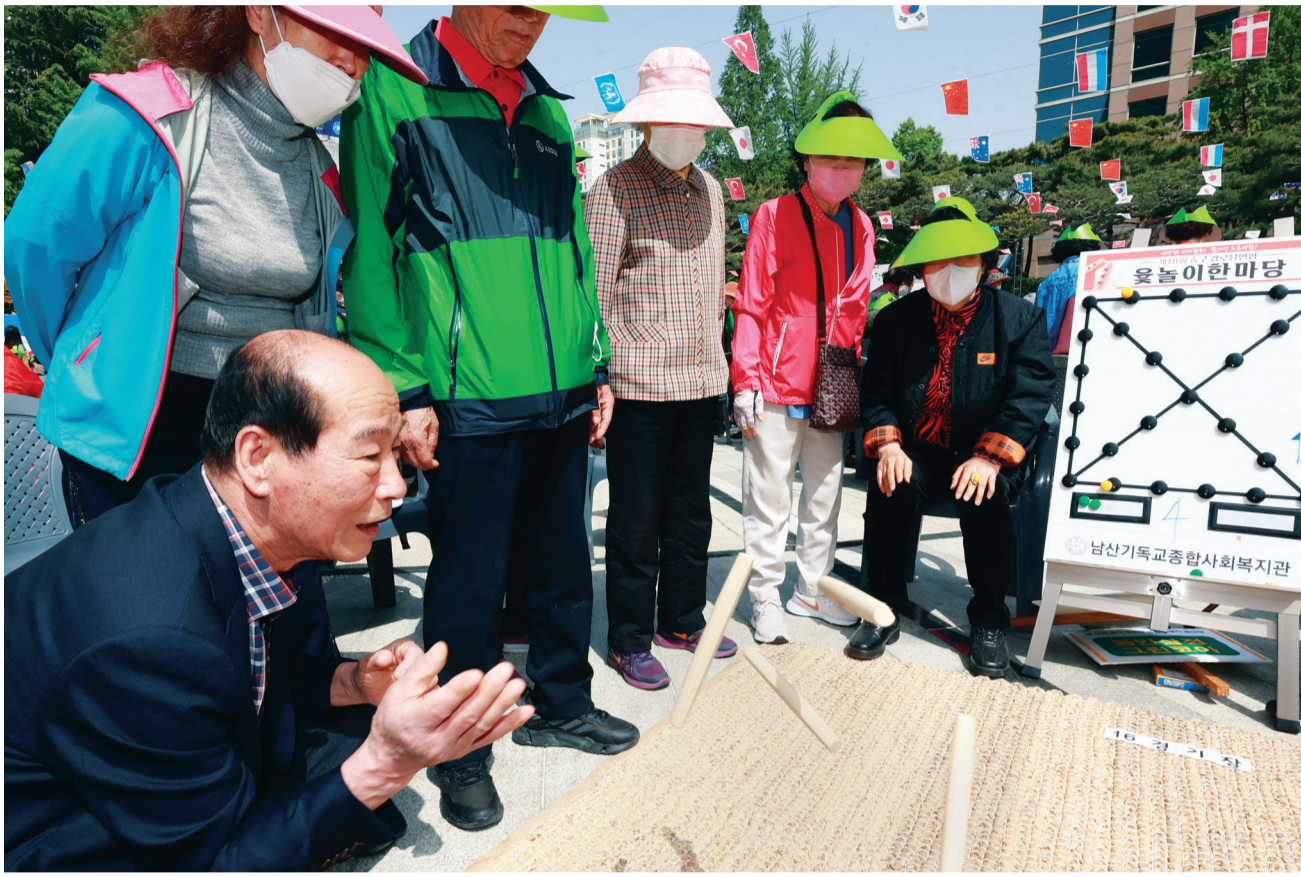
조성된 지 50년이 지난 범어(2.0㎢), 수성(2.9㎢), 대명(2.2㎢), 산격(0.32㎢) 등 4개 지구에 총 7.42㎢가 사업 대상이다.

주택지 통개발은 폭 20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슈퍼블록 단위’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잔여 부지 형태로 개발에서 소외되는 일부 지역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는 규모 기준으로 약 10만~20만 ㎡를 최소 개발 단위로 할 예정이다.

주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쉽게 접근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 목표다. 일종의 ‘대구형 5분 동네’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통개발은 고층과 중저층 주택, 상가, 공동이용시설 등이 어우러진 최소 개발 단위인 표준모델과 이 표준모델 여러 개가 합쳐진 확장모델로 나뉜다.



“모 나와라” 18일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화합의광장에서 열린 ‘제18회 경로당 연합 웃놀이 한마당’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표정으로 웃을 던지고 있다. 정훈진 기자 jhj131@kyongbuk.com

확장모델은 학교·공원·주차장·의료 시설·도서관 등 권역 단위에서 필요한 주요 공유 인프라를 함께 배치한다.

4개 권역별로도 지구별 특성에 맞는 개발이 추진된다.

범어지구는 ‘활력이 넘치는 프리미엄 주거지’를 슬로건으로 지형과 조화되는 주택 유형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야시골공원에서 동촌유원지로 이

어지는 녹지 가로를 조성한다.

수성지구는 ‘다채로움을 더한 복합 주거지’로 신천에서 수성유원지, 범어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가로를 확보하고 들안길, 동대구로와 연계된 개발을 유도한다.

대명지구는 ‘경관 특성이 살아있는 미래 주거지’로, 산격지구는 ‘젊고 활기찬 새로운 산격’을 목표로 한 미래

세대 주거공간으로 각각 개발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형 5분 동네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 정비를 통해 쾌적한 미래형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대구시의 공간혁신 사업”이라며 “대규모 노후 단독주택지의 정비·개발의 해법으로써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무현 기자 pmang@kyongbuk.com

## 尹, 신임 비서실장 이르면 오늘 발표

장제원·정진석 유력 후보 거론  
김한길 총리 등 최적 카드 고심  
내주부터 통상 활동 재개 전망

국정 쇄신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은 금명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뒤 다음 주부터는 통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 사의를 표한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 안 등 복수의 인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관련기사 19면**  
총선 패배로 나타난 민심 이반을 수습하고 여소야대 정국에 대응하려면 인적 쇄신 카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총리와 비서실장을 어떤 얼굴로 내세울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를 고려해 정부 각각과 소통 역량이 뛰어난 인사 중심으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19일 발표 가능성도 있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종 인선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마

지막 고심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8일째인 이날까지 대외 행보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 외에는 중동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14일),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접견(15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및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 통화(17일) 등 필수적인 외교·안보 일지만 간간이 진행했다. 다음 주 초부터 외국 정상 방한, 재외공관장회의 부대행사 등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관여하는 공개 일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인선과 관련, 윤 대통령은 대신 비공개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인적 쇄신 등과 관련한 의견과 건의를 듣는 것으로 보인다. 사흘 전 서울 모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비공개 만찬을 하며 총리직을 제안했으나, 홍 시장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각각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총리 후보로는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야권 출신인 김한길 위원장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전 장관 등도 거론된다. **2면에 계속**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 포항시, 철강공단 악취 제로화 총력

입주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눈길

포항시가 철강공단 내 입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변화된 접근으로 악취 개선에 나서 지속가능한 환경 개선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포항시는 철강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대두된 공단 인근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배출시설 특별관리, 환경상황실 및 민간환경 감시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악취 저감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러 최근에는 시와 철강관리공단·경북동부기술인협회·포항산업과 학연구원(RIST) 등 유관기관과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공단 입주

기업들이 자발적 악취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악취 저감 노력에 앞장서는 기업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RIST 등 전문 기관은 악취 진단과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에 나서며, 공단 내 기업(사업장)들은 자발적인 악취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된다.

전국의 공업도시 가운데 대규모 산단에 입주한 기업 대다수가 악취개선 협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하며 민관이 악취 근절에 함께 나선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시를 중심으로 그동안 악취 근절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 “기회의 땅 경북서 ‘K-드림’ 실현하세요”

이철우 지사, 1호 인재스카우터로 몽골 유학생 유치 나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북 1호 인재 스카우터 역할을 자처하며 몽골 유학생 유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18일 몽골 울란바토르 문화센터에서 700여 명의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북도 몽골 유학생 유치설명회’에서 경북을 소개하고 K-Dream 실현에 경북이 함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한국과 몽

골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일제 식민지 지배와 한국 전쟁으로 희망이 없는 나라였던 한국이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새마을운동에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 LG, 포스코 등 세계적 기업의 기반이 된 경북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스마트팜 등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중심지로 대학 중심의 지역혁신으로 지역 인재

와 외국인 유학생이 교육·취·창업·지역 정착의 선순환 체계를 활용해 K-Dream을 경북에서 함께 실현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특강은 몽골어로 진행돼 학생들이 열광하는 등 격의 없는 소통으로 관심과 호응을 성공적으로 끌어냈다.

이 지사 특강에 이어 이상수 교육협력과장은 입국부터 초기 적응, 학업, 졸업 후 취업·정착까지 이어지는 경북도만의 특화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을 홍보하고, 경운대학교와 구미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위

및 한국어과정, 장학제도 등을 소개해 현장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철우 지사는 “학령인구 급감, 청년인구 유출로 인해 해외 인재 유치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이 경북에서 자신의 특기와 역량을 키워 K-Dream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일 지자체 최초로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책임지는 ‘경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정주를 위해 K-Social 교육과정, 산업 캠퍼스 실습인턴제, 취업 인턴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원 기자 kcw@kyongbuk.com

GOOD AIR CITY 인증도시

# 대한민국의 숨, 울진

대한민국이 숨쉬고 모두가 함께 숨쉬는 땅, 울진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동해바다의 푸른공기와 금강송의 맑은공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맑은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 인증도시)울진을 상징합니다.